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문의 강득구 의원실 02-784-2747

진상조사단, 해맑음센터 방문 ‘학폭 피해학생 회복과 치유 최우선해야’

- 23일(목) 9시 40분 소통관,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발표와 교육부 대책 마련 촉구
- 강득구 단장, “학폭 피해자보호 최우선으로 대책 마련해야...센터 외진 곳 위치와 노후화도 심각”
- 24일(금) 오후 2시, 반포고 방문해 학생부 강제전학 기록 삭제 절차 등 질의 예정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3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2일(수),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은 전국단위 국내 유일 학교폭력 치유 전문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해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조정실 해맑음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센터에서 생활했던 학생, 학부모님들, 수도권센터장님 등이 참석했다.

학폭 과정을 겪어온 피해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해학생의 선도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생기부 기재 연장 문제는 가해학생 측이 삭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소송은 늘어나고, 동시에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제고되어야 하고, 대신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고, 조기개입이 가능해지도록 교육당국이 더 집중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폭은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꼬집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맑음센터의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도, 전국단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만큼 피해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를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해맑음센터 현장은 국가가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학생들끼리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모습”이었다며,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강득구·강민정·도종환 의원은 단순한 문제제기와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에 대해 진단하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24일(금) 오후 2시, 정순신 전 감사의 아들이 전학을 갔던 반포고등학교에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던 강제 전학 기록을 삭제한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정순신 사태는 학폭 피해당사자·가족이 평생 치루는 엄청난 피해!
정부는 해맑음센터처럼 학폭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에
최우선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폭의 심각성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검사 아빠 찬스를 통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학교폭력 처리 과정,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선 3차 가해 등
국민적 공분과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센터에서 생활했던 학생과 학부모님,
직원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폭 과정을 겪어온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인식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폭으로 인해, 학업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피해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피해가족들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부모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과 검사 아빠의 권력을 통한 법 기술 발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해맑음센터의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통해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미 이 사건으로 민사고에서의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고, 대학 진학을 못했으며,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 해외로 나갔다는 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해맑음센터의 좋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접근성과 시설의 미비가 심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 외곽에 위치한 해맑음센터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구불구불한 논밭길을 따라 들어가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 인근에는 다른 시설물이 전혀 없었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는

‘진입금지’가 적힌 테이프가 붙여진 채로 둘러쌓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붕 떠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내부에 들어가보니 바닥이 크게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통계현황에 따르면, 센터 방문 대비 실제 입교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맑음센터가 대전 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특성상,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보다 시설이 낙후된 곳으로 보내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맑음센터가 ‘전국단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만큼 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고,

피해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를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권역별, 지역별로 위치한 다른 센터와의 연계 또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면밀히 살피고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해맑음센터 현장은 어떤 면에서 국가가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학생들끼리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한 부모님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해결하면서 극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도 컸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먼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방향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교육철학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있어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생기부 기재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생기부 기재 문제가 현재의 학교에 어떤 다른 보호장치도 없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삭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소송은 늘어나고, 동시에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설계에 있어 학폭 기재 보존기간 연장 같은 방안 대신,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조기개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에 교육당국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편의적 접근이 아닌, 그리고 가해학생의 엄벌에만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학생’의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끝으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평소에도 ‘아빠가 검사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빨갱이’, ‘적폐’ 등의 언어폭력을 일상적으로 일삼았던 가해학생은 버젓이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학생과 가족,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묻힐 뻔했던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정순신이 존재하고, 수많은 정순신 아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피해학생과 피해가족들의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31일, 국회 교육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합니다. 특권을 가진 검사로서,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24일 14시에 반포고 현장방문을 합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걸쳐

서울대, 민사고, 경찰청과 어제 해맑음센터 방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학폭은 이미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제 해맑음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현재 학폭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 진단하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피해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목)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득구 · 강민정 · 김남국 · 임호선 · 전용기 국회의원